

# 2023-1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에세이]

※ 휴면명조 11p, 줄 간격 160%, 전체 2페이지 이상 (2,500자 내외)

인적 사항				
소속		학번	20233361	비고
이름		연락처	010	

제목	국어 교사로서의 의미를 찾은 과목, <국문학개론>		
교과목	국문학개론	담당 교수명	조희정 교수님
구분	전공		

## 1. 서론

조희정 교수님의 <국문학개론>은 2023년 1학기 동안 수강한 과목 중에서 내가 가장 강력히 추천하는 명강의이다. 이 과목은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다. 내가 <국문학개론>을 명강의로 추천하는 이유는 다른 수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 과목이 가장 이상적인 대학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대학에 입학한 지 한 학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문학개론>은 내가 경험한 다른 강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질이 좋은 수업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 방식 면에서도 지식 전달에 있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문학개론>을 명강의로 추천한다.

이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학교에 이런 훌륭한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 특히 국어교육과에 진학하여 <국문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이 글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먼저 교수님의 수업방식에 대해 소개한 후, 내가 학습한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 과목을 듣고 변화한 내 자신과 느낀 점을 쓰려고 한다.

## 2. 본론

### 1) 수업방식

먼저 교수님의 수업방식에 관해 설명해보겠다. 수업은 주로 ppt 자료를 사용하며, 특이한 점은 ppt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만 공개하신다. 또한,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업 시간에 필기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필기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 될 건 없다. 강의에서는 교재를 주로 활용하시고, 교수님께서 별도의 부가적인 내용을 가져와 수업 중에 설명해 주신다.

수업 방식은 주로 교수님의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한 번씩 강의 내용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교수님께서 구성한 팀별로 진행되며, 토론한 내용은 토론방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발표를 시키시고, 매 수업 시작 전에 이전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지 발표를 통해 확인하신다.

과제는 거의 매주 과제 1개씩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요약과제는 서정·서사·극·교술 갈래 주제로 총 4번 주어지며, 교수님께서 과제 형식을 제시하신 후 학생들이 해당 형식에 맞게 채우는 방식이다. 에세이 과제는 총 3번 주어지며, 교수님께서 제출된 에세이 중에서 다른 학생들이 참고할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공개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 시험은 모든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되며, 기말

고사는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 전체를 포함한다. 시험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충실히 기억하고 있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난이도이지만, 작성해야 하는 양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 2) 내가 과목을 공부한 방법

나의 과목 공부 방법은 '암기'이다. 대학 공부는 고등학교 때처럼 문제집을 주구장창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첫 시험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공부의 기초인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 매일 복습하며 암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과목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배운 내용을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오랫동안 배운 내용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매일 복습을 통해 머릿속에 배운 내용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필기는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과 교재의 부가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정리본으로 작성한 후, 그 정리본을 외운 후 빈 A4용지에 키워드를 적어가며 관련 내용을 복습하였다. 이 과목은 고전 문학 갈래별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외울 때도 각 문학 갈래를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외우면 쉽다. 또한 암기할 때 중요한 점은 하나의 문학 갈래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문학 갈래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학습해야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문학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며 공부하면 암기할 때 용이하다.

## 3. 결론

### 1) 수강 후 내가 얻었던 것들, 느낀 점

이 강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고되지만, 얻는 것이 많고, 등록금 이상이 가치를 가지는 수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확실히 다른 교과목들에 비해 많은 과제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과 병행하기에는 어려운 과목이다. 그러나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이 많고, '등록금 낸 값어치를 넘어서는 수업'이라고 평가할 만큼 수업을 잘하시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보상이 확실한 강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과목에서 나는 A+ 학점을 받았다. 내가 한 학기 동안 들었던 과목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고, 가장 노력을 기울인 과목 중 하나이었다. 그래서 학점을 받고 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었던 지식의 양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내가 하면 된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여 처음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국문학개론> 수업을 통해 내가 사용한 공부 방법이 대학 공부에 적합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 2) 수강 후 나의 변화

수업을 통해 고전 문학 갈래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지만,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내용은 과목 특성상 배우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직 고전 문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고전 문학 필독 작품들을 참고하여 직접 중앙도서관에 가서 읽어보고, 내가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작품들을 읽어보니 한자가 많아서 한자를 공부하지 않았던 나에게는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고전 문학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여름 방학 때 한자를 공부하

겠다고 결심하였다. 현재 상공회의소 한자 3급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자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 과목을 수강한 후에 내가 부족한 점을 인지할 수 있었고,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를 얻을 수 있었다.

### 3) 이 과목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

나는 중학교 시절부터 중등 국어 교사를 꿈꿔왔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어교육과에 진학하였다. 국어 교사가 되겠다고 이 학교에 왔지만, 정작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입학하였다. 그러나 이 수업을 들으며 대학 4년 동안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왜 교사가 10대 학습자들에게 고전문학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과목의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다. 나는 이 질문이 내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다. 국어 교사가 된다고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이런 근본적인 질문조차 생각하지 않고 교사가 된다고 평평거리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결국 답을 도출하였다. 이 수업이 없었다면, 나중에 국어 교사가 되어도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이유도 모른 채 교육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 수업은 나에게 '나의 꿈을 향한 표지판'이자 '교사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었다.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 등 권한은 본교 CTL로 귀속되며, 제2차 저작물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학내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해당란에 ☑)

※ 비동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 에세이 부문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7월 2일

제출자: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귀중**